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시장은 법보다 빨리 늙는다 -쌀 등급 표시 의무화

정기적으로 장을 보거나 눈썰미가 예사롭지 않은 소비자들은 이미 눈치를 챘을지도 모르겠다. 일부 대형 마트의 쌀 매장에 진열된 쌀의 종류가 전보다 확연하게 줄었다. 이는 쌀 유통업계에는 아주 난처한 상황인 반면 소비자에게는 매우 환영할 만한 변화의 단초, 즉 과도기적 현상이다. 왜 그런지, 그 내막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밥맛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쌀의 수확 전과 수확 후로 나뉜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다시 세분화해 각각의 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확 전 요소에는 쌀의 품종(3점), 재배 방법(2점), 산지(2점), 기상 조건(2점) 등이 있다. 수확 후 요소에는 수확 및 탈곡(1점), 건조 방법(2점), 저장 형태(2점), 도정 특성(2점), 유통(2점), 취반 조건(1점) 등이 있다.

밥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쌀의 품종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를 일일이 따지는 것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뿐더러 막상 관심을 가진다 한들 알기도 쉽지 않다. 결국 소비자는 보다 나은 밥맛을 위해 밥 짓는 도구, 즉 밥솥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지만 실상 취반 조건은 밥맛에 가장 적은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쌀에 대한 정확한

품질 정보 제공으로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양곡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양곡표시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쌀에는 품목, 무게, 생산·가공·판매자, 원산지, 품종과 더불어 등급, 생산 연도, 도정 일자, 단백질 함량 등 쌀의 품질을 좌우하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쌀 포장지에 표시된 이 내용만 꼼꼼히 따져도 소비자는 충분히 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모르는 두 가지 함정이 있다. 양곡표시제의 근거가 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품종과 등급 표시에 있어 예외 조항이 있다. 먼저 품종의 경우 품종을 표시하되 '품종명을 모르거나 품종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으로 표시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급 표시의 경우 해당되는 등급에 동그라미로 표시하되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표시만 하면 여러 가지 쌀을 혼합하는 것도, 예외 등급 검사를 하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다. 쌀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양곡표시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맹이는 속 빠져 있는 실정이다.

범이 이러니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

의 쌀은 단일 품종이 아닌 혼합이며 등급 검사를 생략한 채 판매되고 있다. 덕분에 소비자는 품질을 따지기보다는 브랜드만 보고 쌀을 구매하고, 농민의 입장에서는 예외 좋은 쌀을 재배해 봐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니 질보다는 양 위주의 농사를 선택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굳이 예외 조항을 둔 것은 유통업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다. 쌀을 품종별로 보관하지 않고 혼합해서 보관하면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들고, 품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다들스럽게도 이 가운데 하나가 개선됐다. 정부는 작년 10월13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쌀의 품질 검사를 의무화했다. 즉 '특·상·보통·미감사'로 표기된 품질 표시에서 '미검사'를 삭제하고 '특·상·보통'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등외'로 표시하도록 했다.

품질검사의 의무화는 밥맛에 의외로 큰 영향을 미친다. 쌀알의 형태가 온전하고 색이 투명할 것을 완전립이라 하고 쌀알이 깨졌거나(싸라기), 하얗게 변색됐거나(분상질립), 상처 입을 것을 불완전립이라 한다. 쌀의 품질검사란 전체 중량에서 불완전립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는 과정이다. 불완전립은 밥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과 고압을 견디

지 못하고 퍼짐으로써 밥맛을 저하시킨다.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경우 완전립의 비율이 90% 이상을 유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60~70%에 그치는 실정이다.

품질검사가 의무화되면 통상적으로 완전립의 비율이 95% 이상이면 특, 90% 이상이면 상, 70% 이상이면 보통, 그 이하는 등외로 표시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맛있는 밥을 위한 선택권이 넓어지고, 유통 과정에서는 품질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쌀의 전반적인 품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법이 개정된 것은 작년이지만 시행되는 것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13일부터라는 사실이다. 시장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준 것인데 일부 대형 마트에서는 법이 개정되자마자 서둘러 품질검사를 거친 쌀만 판매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쌀 매장에 진열된 쌀의 종류가 줄어든 것에는 이러한 속사정이 있다.

흔히들 먹는 것이 정치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먹는 문제의 이면에는 정치가 있다. 정치의 결과는 법률로서 확정되고 공표된다. 그리고 시장은 법보다 훨씬 먼저 반응한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맛 칼럼니스트>

社說

5·18 진실 규명과 세계화 드디어 때가 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기를 맞은 올해, '그날'의 진실 규명 및 오월정신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발표 명령자, 헬기 사격, 행불자 문제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5·18의 진실 규명은 물론 당시의 역사적인 현장 보존, 정신 계승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재조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5월의 '부활'은 옛 전남 도청 원형 복원 운동과 전일빌딩 탄흔 발견에서 촉발됐다고 할 수 있다. 윤 시장은 지난해 발족한 옛 전남도청 복원 범시민단체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며 복원 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그 결과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탄흔이 발견됐고 광주시는 신속하게 국립과학사건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 헬기 사격에 의한 탄흔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이끌어 냈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헬기에서 무차별 난

사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윤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대선 후보들을 헬기 사격 탄흔이 발견된 전일빌딩 현장으로 안내해 5·18 진실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 점도 진실 규명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진실 규명과 함께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해 5월 역사를 바로 세우는 단초를 마련했다. 특히 최근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UN본부에서 개최한 5·18 기념 국제 학술대회는 5월 정신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그럼에도 최초 발표 명령자 색출 등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와 시는 진실 규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연대와 미래의 가치인 5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논란 끝에 인준된 총리새 리더십 보여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어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날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이 후보자는 국회 인준 절차를 마무리 짓고 45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이 총리는 합리적 성품의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소통을 통한 시대적 적폐 청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다. 호남 민심도 전남 지사 출신이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가 된 것에 대해 자부심과 함께 많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총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만만치 않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장기간 국정이 공백 상태에 있었던 만큼 각 부처를 통괄하고 문재인 정부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또한 시대적 적폐 청산도 난제인 만큼 과감한 리더십과 함께 때로는 사회적 기득권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 고도의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신임 이 총리의 상징성은 '호남'이라

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초대 총리로 지명한 것은 '호남 중용'의 상징성을 통해 국민 대통령의 정정을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결국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인사와 경제 및 권력의 왜곡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당장 공직사회의 호남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장·차관도 중요하지만 각 부처의 핵심 보직 인사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보수 정권 9년 동안 한직으로만 돌았던 호남 출신 공직자들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한다. 정부축을 중심으로 구축된 경제적 편중 구도 극복을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호남 공약을 챙겨야 한다. 새로운 호남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총리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 총리는 언론인 출신으로 당 대변인만 다섯 차례 맡는 등 정치권에서 '명대변인'으로 평가받는다. 그가 국무총리로서 정치권을 넘어 민심과 시대의 대변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의료칼럼

여름철 피부 알레르기



신봉석 조선대병원 피부과 교수

여름에는 신체 노출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피부 알레르기 질환을 호소한다. 과도한 햇빛 노출, 각종 해충과 벌레, 액세서리, 물놀이 등이 피부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로 작용한다. 여름철 피부 알레르기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예방법을 알면 큰 도움이 된다.

가장 많은 햇빛알레르기는 햇빛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두드러기나 여러 형태의 피부 발진 혹은 수포 등이 나타나고, 평상시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지나가다 화상 피해, 일광차단제, 약물, 특정식품 등과 접촉한 후 햇빛에 노출시 피부 병변이 나타나기도 한다. 목부터 가슴 앞쪽(V-neck) 부위와 손등, 팔과 다리의 바깥부위에 대부분 나타나며, 가려움증을 동반한 두드

러기 양상의 붉은 반점이나 좁쌀모양의 발진, 진물 혹은 물집 등이 동반된다.

햇빛알레르기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치료와 비슷한데 증상이 가벼운 경우 스테로이드 연고 등을 도포하며, 심한 경우 항히스타민제 등의 경구제제를 복용한다. 햇빛알레르기의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햇빛 노출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하며, 외출하기 전 UVA와 UVB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광과민성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향생제, 이노제, 염색약 등의 사용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일광화상은 강한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피부 질환으로 피부가 따끔거리고 쓰라린 통증이 생기기도 하며, 심한 경우 물집과 함께 피부가 벗겨질 수 있고, 피부가 갈색으로 변하는 색소침착도 동반된다. 일광화상이 생기면 우선 화끈거리는 부위를 찬물이나 얼음찜질로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나 물집이 잡힐 정도로 증상이 심하고, 급성염증 등이 생겼을 때는 바로 병원을 찾아 항생제와 항히스타민제 등을 포함한 약 처방과 함께 전문 화상치료를 받아야 한다. 햇빛 알레르기와 마찬가지로 장시간 강렬한 햇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자외선의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 외출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2시간 정도 지나면 추가로 덧바라야 하며, 자외선 차단지수(SPF)가 높은 제품의 경우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적절한 제품과 함께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안면홍조를 특징으로 하는 주사는 얼굴의 중앙부위, 특히 코 주변부와 같이 돌출된 부위와 턱, 뺨, 이마 등에 주로 발생하며, 구진·홍반·고름집과 혈관 확장을 특징으로 한다.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유전적 요인, 개개인의 체질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생각되며 얼굴 혈관이 지속적인 자극에 노출될 시 증상이 심해진다. 만성적인 햇빛 노출도 피부 표면 탄력을 변화시켜 혈관확장을 유발할 수 있다. 발병 초기에는 간헐적인 홍조가 나타나나, 자극에 따라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증상과 함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세혈관 확장과 염증성 구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름철에는 모기, 나방, 곤충 등과 같은 벌레와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곤충의 강신이나 강알칼리 성분의 독소 때문에 피부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부위를 긁어 상처를 내면 연쇄상구균이나 포도상구균의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곤충에 의한 피부질환이 발생하면,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 후에 가려움증과 함께 붉은 반점이나 팽진이 발생하며, 피부 반응이 크고 심한 경우나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동반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더운 여름철에 금속액세서리의 착용은 보기에 시원하고 세련된 느낌은 주지만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 금속 알레르기는 목걸이, 귀걸이 등이 닿는 부분이나 시계, 벨트장식, 바지 단추 등에 의해 발생하며, 붉고 가려운 피부병변과 함께 진물이 동반되는 습진의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땀이 많고 습한 여름철에는 금속성분이 습기에 녹아 피부와 접촉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금속은 니켈이며, 그 외에도 크롬, 코발트, 수은 등이 피부염을 발생시킨다. 니켈의 경우 귀금속, 장신구, 시계, 안경, 벨트장식 등에 이용되기 때문에 흔하게 피부염을 일으킨다. 금속 알레르기의 경우 원인이 되는 금속과 물질을 찾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고

“모든 시민이 주인이다”



한경숙 시민정치페스티벌 정책마켓 코디네이터

지난해 광주 곳곳의 마을을 순례하며 보물지도를 그려보고 싶다면 선배가 있었다. 그가 찾고자 한 보물은 무엇일까? 나 또한 꼭꼭 숨어 있는 보물들을 찾아 나섰다. 보물이라는 것이 너무나 주관적이라 각자의 몫이라 생각했다. 우선 평범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담은 그림을 그려 보았다. 결국 보물은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있었다. 그곳 사람들의 삶은 행복해 보였고 풍요로워 보였다. 그들이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삶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무수한 정책에 있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되었다.

이것이아말로 큰 보물이 아닐까 싶다.

좋은 보물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었다. 정책도 그렇다. 학교나 직장 그리고 가족과 함께 걷는 푸른 길과 공원에도 있고, 가까운 일상생활 곳곳에 소중함 정책들이 숨어 있었다.

최근 개최된 제 52회 광주시민의 날 금남로시민정치페스티벌 '모두를 위한 광주'는 누구나 금남로에 나와 자신의 아이디어를 말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실현해 나가는 장이었다. 특히 광주 시민 모두가 주인이고, 시민의 삶이 곧 정책이 되는 것. 그것이 시민정치 페스티벌 시민총회와 정책마켓이 추구하는 핵심가치였다. 경쟁과 소통 그리고 공유를 통해 광주시민 정책마켓도 문을 열었다. 정책이 논의되는 장, 시민들의 제안이 곧 정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금남로 시민정치 페스티벌 '모두를 위한 광주'가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에 대해 스스로 다시 질문을 던져 본다.

정책이란 정부나 정치단체, 개인 등이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는 방침이

나 수단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시작은 세상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마켓이 품고 있는 문제의식은 무엇일까? 문제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들이 서로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다. 행정은 듣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 자체를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다.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시민이다. 무엇보다 행정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책마켓은 정책을 매개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마켓, 즉 정책공론장이어야 한다. 정책마켓은 이번 첫 번째 성과를 이어받고, 정책을 매개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마켓으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다.

광주는 다양한 정책 관련 프로그램이 기획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듣고, 모으고, 담아내고, 공유하고, 확산하는 정책공론장의 운영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교류를 기반으로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론의 장은 무엇보다 자발성과 지속성을 전제로 한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론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작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지향점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더라도 정책마켓이 열리는 동안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

시민의 날 행사가 이틀에 걸쳐 열린 것은 1966년 개최 이후 처음이다.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와 시민기획단을 15회에 운영했다. 희망을 꿈꾸고 행동하는 선배들과 함께 했던 자리가 과분하면 서도 내게 가치 있는 삶을 선사한 느낌이여서 좋았다. 마흔의 강을 건너가는 길이 참으로 행복하게 느껴졌다. 틀 안에서 벗어나 좋은 정책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세상과 함께 가치 있게 견고 싶어진다. 감사한 일이 많아질수록 삶은 더욱 깊고 따뜻해진다. 모든 시민이 주인이다.

無等鼓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서재에서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의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책장을 유심히 살피게 된다. 책 목록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조금은 알 것 같기 때문이다. 가끔 내 책장에 꽂혀 있는 것과 똑같은 책을 발견할 때면 묘한 동질감을 느끼기도 한다. 타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나 북가페를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서거'를 훑어보며 내 책장과의 공통점을 추려 보는 것도 흥미롭다.

행복한 책 선물

책은 선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テム 중 하나지만 상태에 '딱 맞는' 책을 고르는 건 어려운 일이다. 나무터도 가끔 전혀 '땡기지' 않는 책을 받아 들고 난감해 할 때가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취향과 성향 또는 독서 이력 등을 생각하며 책을 고르고, 무엇보다 "그와 함께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책을 선물로 나누는 건 행복한 일임에 틀림없다. 최근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대통령 부부에게 책 두 권을 선물해 화제가 됐다. 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남주의 소설 '82년 생 김지영'을, 김정숙 여사에게는 황현

산(평문가)의 산문집 '밤이 선생님'을 선물했다.

1982년에 태어나 회사원을 거쳐 서른넷 주부로 살아가는 '김지영'을 통해 여성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82년생 김지영'은 이미 노 대표가 "이 책을 읽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도 좀 더 인간다운 사회가 되리라 확신한다"며 '강추'했던 소설이다. 금태섭 의원은 300원을 구입, 편지와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한다. 판매

량도 6만7000부를 넘어섰다. '82년생 김지영을 안아 주십시오'라는 손글씨와 함께

책을 건넨 노 대표는 '우리 사회의 차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책'이어서 선물했다고 밝혔다.

황현산의 '밤이 선생님'은 나 또한 두고두고 아껴 읽는 책이라 반가웠다. 아직 읽어 보지 못한 '82년생 김지영'은 '필독 리스트'에 올라 두었다. 청와대 오찬 덕에 좋은 책을 소개받은 셈이다. 얼마 전엔 '대통령 등산복'이 화제가 됐지만 앞으로는 '대통령이 읽은 책'이 입소문을 타 우리 모두 책 선물을 나누고 읽기 삼매경'에 빠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